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항*정
파견국가	The United States	파견도시	Brownsville, Texas
파견대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Brownsville	파견기간	2014.8.22~2015.5.15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The University of Texas at Brownsville 은 미국 텍사스 주의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멕시코 국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식당은 1군데 밖에 없었지만 전체적인 시설은 깨끗하였습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멕시코와 근접한 지역이다 보니 히스패닉 친구들이 학생의 대부분 이었으며 친구들이 매우 친절하였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여 주최하였습니다. 그래서 UTB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p>
2014-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1.Composition: 일주일에 2번 1시간 30분씩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1시간 30분씩 튜터 수업이 진행되었다. 작문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주로 MLA형식에 따라 글 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과제는 일주일에 2 단락 정도 써간 후에 교수님께서 나의 글을 읽어보신 후 피드백을 주었고 튜터 수업에서도 또 다른 피드백을 통해 글을 작성해갔다. 한 달에 2~3장 분량의 에세이를 제출하며 1학기 동안 총 4개의 에세이를 제출하게 된다. 이 4개의 에세이가 중간고사와 과제가 되고 기말고사는 따로 한번 보게 된다.</p> <p>2.English Grammar: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법을 잘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가 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문법을 UTB에서는 대학교 2~3학년 때 배우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문법수업을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들었던 것 같다. 과제는 매주 20문제 정도의 퀴즈가 있으며 중간고사1번, 기말고사 1번이 있다. 수업만 잘 들으면</p>

	<p>퀴즈와 중간, 기말고사는 쉽게 볼 수 있고 좋은 학점도 받을 수 있다.</p> <p>3.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영어학개론 수업이라 주로 이론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된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다가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수업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제나 중간, 기말고사 시험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주시는 유인물만 잘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정말 친절하셔서 질문하면 다시 설명해주신다. 이 수업의 평가방식은 예비 중간고사, 퀴즈 1번, 중간고사, 프레젠테이션 발표1, 기말고사로 이루어져있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교재를 사서 읽어보시라고 하지만 교재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수업에서 교재를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다.</p> <p>4.Jogging: 일주일에 두 번 아침 8~9시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다. 주로 조깅을 하는데 가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도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다면 추천이다. 과제나 중간고사는 없으며 기말고사만 있다.</p>
2015-1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1.Composition 2: Composition 1수업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수업이다.</p> <p>2.Literary Analysis: 문학수업이기 때문에 문학을 읽으며 이전에 몰랐던 문학을 알게 되는 재미도 있지만 과제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과목이기도 하였다. 한 학기 동안 과제는 총 4번의 에세이와 퀴즈 2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 4번의 에세이는 문학을 분석해야 하는 과제라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각각 15분 동안 자신의 에세이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에세이를 보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p> <p>3.Interpersonal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효과, 스킬 등을 배우는 수업이다. 교수님께서 PPT수업하시고 교수님께서 재치있게 수업을 진행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으며 과제는 Presentation 발표 1번,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페이퍼 10장을 써야 한다.</p> <p>4.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이 수업은 영어 발달사로 2014-2학기 때 수강한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수업의 교수님과 같은 교수였다. 그래서 수업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주시는 유인물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시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평가는 예비 중간고사,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총 4번의 시험을 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교재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수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학교 개강은 8월 22일이었는데 오리엔테이션은 개강 4~5일 전 이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p> <p>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재학생을 위한 이벤트가 많이 열리며 또한 학교 기숙사에서 많은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p> <p>-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각국의 국기를 소개하는 이벤트, 교환학생의 본교를 소개할 수 있는 이벤트, 매주 목요일 커피 앤 도넛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벤트, 아시안 New Year's day이벤트, Thanksgiving 이벤트 등</p> <p>-학교에서 열리는 이벤트: 햄버거, taco, 빵, 과일, 스낵 등을 주는 이벤트, 동아리 설명 이벤트, Valentine 기념 이벤트,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 등</p> <p>-기숙사에서 열리는 이벤트: Cup cake 만들기, Thanksgiving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Halloween 이벤트, Valentine 이벤트, 치안 대비 이벤트, 요가, 영화보기 등</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8월에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텍사스 Brownsville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습도도 높고 날씨가 더웠기 때문입니다. Brownsville의 전반적인 날씨는 매우 덥지만 아주 가끔은 비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Brownsville의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 소식이 없었지만 정말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매일 우산을 가방 속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Brownsville이 더운 지역이기는 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멕시코 국경과 가까워 위험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밤 늦게는 돌아다니지 말고 방 문과 기숙사 문 단속을 잘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police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이름은 Casa Bella입니다. 한 아파트에 방 4개, 거실, 공용 부엌과 공용 세탁기가 있습니다. 또한 각 방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정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활한 아파트엔 다른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식습관 등 우리와는 다른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서로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 ) 직접 요리 (O)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파트에 공용 부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나 파스타 등을 쉽게 만들어 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에서 학교는 걸어서 5~1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걸어서 통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은행이나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차를 이용하였으며 차로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약 180 만원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순천향대에 지불한 등록금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 총 \$295</p>	

숙소	각 학기 \$2100 두 학기 총 \$4200	
식비	매달 \$300~400불	
교통비	0	
책값	\$130	
기타1		
기타2		
합계	대략 \$15,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1. 무엇보다도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도 빨리 친구를 사귄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더 빨리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자신이 가게 될 학교에 이미 파견되었던 선배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환학생으로 파견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 이미 파견되어 UTB에서 생활하고 있던 언니로부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제가 몰랐던 정보도 많이 얻었습니다. 또한 언니가 언니들의 현지 친구들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파견되기 전부터 조금씩 연락을 하여 파견 후에 현지 친구들을 쉽고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으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차로 1시간 거리에 한인 마트와 4군데 정도의 한인 식당이 있기 때문에 파견할 때 고추장, 참치캔, 김 등과 같은 한국음식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인 마트에 다 있습니다. 차로 못 간다면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미국에 파견된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한국에 귀국했네요. 저는 파견되기 전에 UTB에 파견되어 있었던 언니에게 궁금한 점들도 많이 묻기도 하고 현지 친구들을 소개받아 조금은 친해진 상태로 미국에 파견 되었습니다. 파견되기 전에 미리 현지친구들과 친해졌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많이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파견되기 전에는 UTB의 재학생 대부분이 히스패닉이고 스페인어를 쓴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영어를 못쓰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였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스페인어를 쓰기도 하지만 영어도 많이 쓰고, 특히 친구들이 저와 대화할 때는 100퍼센트 영어만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말 학교 재학생들이 친절하고 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파견된 도시가 멕시코와 근접했기 때문에 재학생의 대부분이 히스패닉이었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치면 친절하게 웃어주었으며 수업이 끝나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사히, 그리고 즐겁고 뿌듯하게 미국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파견되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리며 미국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각국의 국기를 소개할 수 있는 UTB  
Flags Event



아시아 New year's day 기념 행사



치안 예방 이벤트



멕시코 전통 행사일



친구들과 동물원에서



Thanksgiving Day